

땅에 바싹!

붙어서 자라는 '민들레'



2024. 3. 25. ~ 4. 26.
따스한 봄과 만난 마음튼튼 1반의 놀이

“민들레”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싱그러운 새싹들이 돌아나는 계절, 봄을 만난 친구들은 바깥 놀이터의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선화, 앵두나무, 천리향, 탕자나무, 등나무, 튼リップ 등 마당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친구들 눈에 띈! 것은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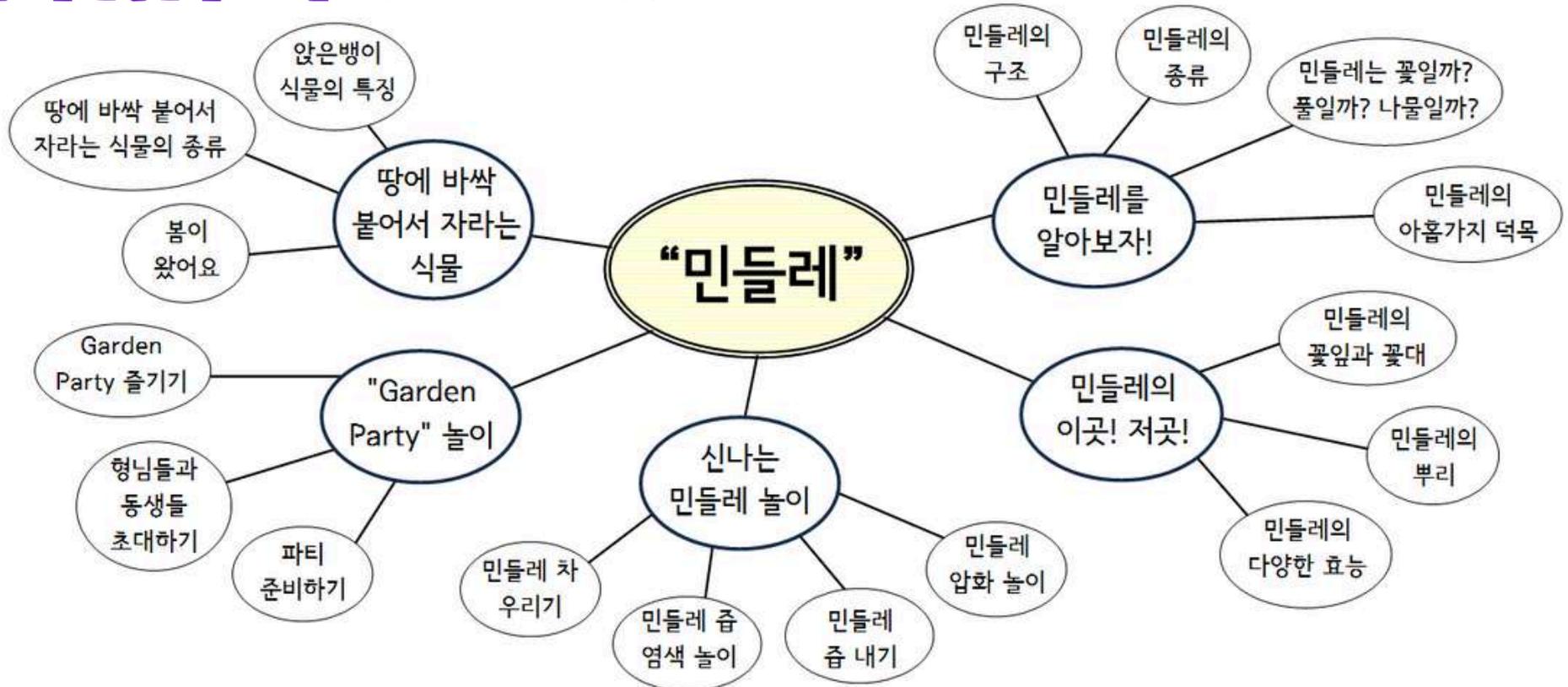
‘땅에 바싹 붙어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자라나는 식물들과 달리 돌이 깔려 있는 주차장과 화단의 틈새에 있는 로제트 식물들을 본 친구들은 “애들아! 이거 누가 밟았어?”, “선생님~ 이 풀들은 시든 것 같아요!”, “흙이 없는데 식물이 돌에서 어떻게 자라나요?” 하며 흥미를 가졌습니다.

민들레를 즐겁게 관찰해보던 친구들은 로제트 식물들이 모두 잎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찾게 되었고, 뽀족 뽀족한 입을 가진

노란 꽃 ‘민들레’를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봄, 사계절의 시작인 봄, 싱그러운 봄을 즐기며

‘민들레’의 생김새와 특징, 쓰임, 효능 등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하고 표현하며 놀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 (3.25. ~ 4. 26.)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봄이 되면서 몸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변하고,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는 친구들에게 어느 날! [봄은 고양이] 그림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봄에는 어떤 것을 만날 수 있을까요? ‘봄’ 을 느끼며 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본 친구들은 새싹과 꽃,
나비와 애벌레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로 그림책의 장면을 재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며 함께 그림책 재구성 놀이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봄’ 은 어떤 모습일까~?



노란색 물감으로 색칠하니까
우리 그림이 사라지네!



내가 그린 애벌레한테



봄에는 예쁜 꽃이 피어나니!

노란색 옷
입혀줘야지!



대머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생겼!



여? 다들 밟았나봐! 누가 밟은거야!!!



고양이가
꾸욱... 밟았나 봐!
이 풀은 아프겠다...!



장미처럼 생긴 식물 발견!!

처음 보는 게 생겼네?
꽃 봉우리라고 하셨어!



“우리 유치원 마당에 식물이 엄청 많네?!”

바깥 놀이터에서 놀이하던 친구들은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와 식물에 ‘연두 빛 잎’이 돌아 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마당에 있는 여러 식물을 관찰해보고, 각 식물이 가진 특징들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 우리 친구들이 가장 흥미로워 했던 식물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땅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밟았는데 누가 이거 밟았나 봐요!**” 라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다함께 누가 밟았는지 범인을 찾기 시작하며 재미있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서 사는 식물”

로제트 식물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친구인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양한 봄의 식물들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땅에 바싹 붙어서 자라는 식물들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 로제트 식물 사진과 우리가 꾸민 그림이 담긴 ‘관찰 액자’를 만들어 ‘로제트 찾기 대작전!’ 놀이를 하였습니다!
또, 마당에 있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교실로 데리고 와서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액자가 커서 엄청 큰 식물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따뜻한 해님처럼
시원한 바람을
그릴래!



이건 질경이에요!
정말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주황색 로제트
식물도 있을까요~?



정말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로제트 찾았어요!



장미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로제트인가?



민들레 꽃잎은
병아리 닮았어!

민들레 잎은
뽀족뽀족하네~!

마을 주변 교실에서
잘 살겠지~!

이 로제트 잎은
매끈매끈하게 생겼네~!



달맞이꽃은 가운데에
장미 모양이 있어!



민들레는 잎이
엄청 뽀족뽀족해!



털이 있는 로제트 식물은
털로 자기를 지키네!



개망초로 민들레처럼
잎이 울퉁불퉁하네~!!



“우리가 로제트 식물을 만들어볼까~?”

방석처럼 딱! 눌러있고, 퍼져있어서 ‘방석 식물’이라고도
불리는 로제트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제트 식물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찾아 ‘로제트 도감’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알게 된 식물들을 블록으로 만들어보며 텃밭을 구성하며 놀이하셨습니다.

손전등으로
로제트를 찾아볼까?

호랑이도 로제트를
좋아한다!

우리가
구성한

로제트
텃밭!



우리 민들레 만들어볼까?



민들레는 햇님을 닮았네~?



“로제트에서 꽃이 피어난다고~?!”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물 중,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식물은 민들레! 유치원에 올 때나 집에 갈 때, 바깥 놀이를 할 때 자주 만나게 된 민들레에 친근감을 느낀 친구들은 민들레의 모습을 놀잇감으로 구성하며 놀이하셨습니다.

민들레 잎은
세모모양이 많아!



동그란 꽃잎이
엄청 많이 있어!



내가 본 민들레는
연두 색깔이랑
노란색이 섞여 있었어!



창문에다가 민들레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셀로 판지도 민들레 색깔!
모두 다 노랗게 보여!



동그랗게 말았더니!
민들레 꽃잎 같아졌어!



짜~악! 늘렸더니
꽃잎같은 구멍들이 생겼어!



아침이 되니까
그림자로 변했어!!!



검은색 민들레도 예쁘네~?!

“민들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은 민들레의 여러 부분들을 관찰하며 특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꽃을 보며 “뽕뽕한 노란색 병아리를 닮았어요!”,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잎을 보며 “메리크리스마스인가?!”, “트리 같아요!”, “상어 이빨처럼 생겼어요!” 열매와 갓털을 보며 “폭탄처럼 씨앗이 펑~ 날라가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공처럼 생겼어요!” 꽃대를 보며 “초록색 빨대 같아요!”, 뿌리를 보며 “당근처럼 생겼네~?!” 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은 민들레의 재미있는 특징들을 대왕 민들레로 칭하며 공동 작품을 만들고 각 부분의 특징을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민들레 꽃대는 초록색이고 두꺼워!



나무색 파스텔들로 색칠하니까 진짜 당근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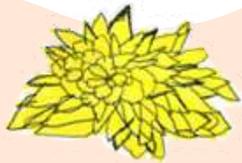
민들레 꽃은 길쭉한 꽃잎이 100개 남게!! 모여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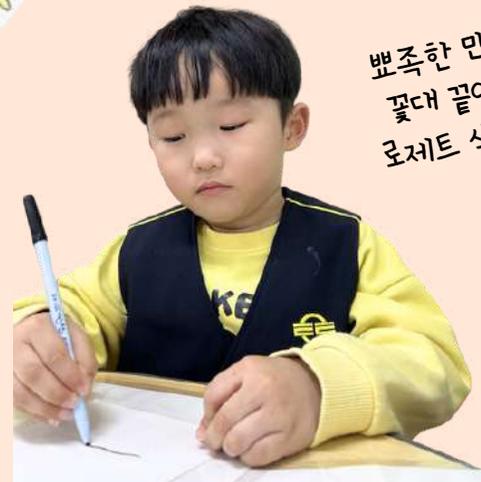
우리 손도 민들레 꽃처럼 되었네?!



민들레의 뿌리는 한개야! 아주 두껍고 단단한 뿌리가 딱 한개 있지~!



뽕뽕한 민들레 잎은! 꽃대 끝에만 있어!! 로제트 식물 아니까~!



민들레 흙씨를
날리는 것처럼
살살!

풍선을 크게 불 때
처럼 엄청 세게!

살살 불었는데
비눗방울이 생겼어요!

어떻게 불어야
비눗방울이 생길까?



진짜 비눗방울이
불어지네~?!
나도 성공!



“빨대처럼 생긴 민들레 꽃대”

민들레는 꽃일까? 나무일까? 풀일까? 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알아보던 친구들은 민들레가 꽃처럼 줄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꽃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대와 줄기 식물자료를 이용해 비교를 해보니 꽃대는 안이 빵~! 뚫려 있고, 줄기는 채워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대를 유심히 보던 친구들은 “빨대처럼 생겼어요!”, “꽃대로 우유 마시면 어떨까요~?”, “나는 빨대로 비눗방울 놀이해봤는데!”, “민들레 꽃대로도 비눗방울이 불어질까~?” 하며 꽃대로 하는 비눗방울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잘 안되네...
그럼 구멍이 큰 꽃대로 해야겠어!

나는 왜 작은
방울만 불어질까~?!
구멍이 커서~?

구멍이 작아서~?

누가 누가 가장 많이 하나!!

비눗방울 대결 시작!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방구 냄새인가...?

난 보리차 냄새 같아!



따뜻한 물은 벌써 노란색이야!

차가운 물은 노란색이 안되네?



“민들레차는 어떤 맛일까~?”

민들레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 중에서 마음 튼튼 1반 친구들이 가장 먹어 보고 싶은 음식을 투표로 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바로바로 ‘민들레 차’, 민들레 차는 어떤 색일지? 또, 어떤 맛일지? 어떤 냄새가 날지 상상해보며 민들레 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감기라서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해요!”, “나는 너무 더워요! 차가운 거 먹을까요!”라며 원하는 차를 이야기하여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중! 어떤 물에서 민들레 차 티백이 잘 우려날지 예측해보며 민들레 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를 감사한 분들에게 배달해요!

내가 좋아하는 유니콘 맛!



왜 따뜻한 물이 빨리 우려나지?

민들레가 목욕하고 있어!



달콤한 냄새가 나요!

카페에서 나는 냄새!



진달래 동산에 왔어요!



진달래에 점이 있어네?
징그러운 것 같아...

“민들레의 봄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봄이 되어 가장 먼저 만난 ‘민들레’, 그 다음으로 만난 봄의 식물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다가 만난 벚꽃을 관찰한 친구들은 “벚꽃이 분홍색이 아니었어! 난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하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진달래 동산에 견학을 다녀와서 다양한 색을 가진 봄의 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민들레와 함께 봄에 피는 여러 꽃을 광학펜으로 관찰해보며 민들레와 함께 하는 봄 꽃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책하다 만난 벚꽃!



민들레 꽃잎에는
갓털이 달려있었어!!



재비꽃은 나비
날개처럼 생겼네~?!



광학펜으로 만난 꽃의 무늬들...



난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진달래 머리카락 만들거야!

나는 민들레로
노란색 코를
만들었어!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명화 재구성

나는 빨간색 진달래!

보라색 제비꽃은
보라색 물이 나오나?

매트 위에서 탕탕!
치면 어떻게 될까?

진달래에서 예쁜
분홍색 물이 나왔어!!!

민들레에서는 노란색!
잎에서는 초록색이 압색되었어!

쭈욱 쭈욱 문질러도
꽃에서 즙이 나올까~?

잡지에 나뭇잎을 넣으니까
마구 날라가니!

잡지에 꽃을
넣으면 쓱쓱!
자랄 것 같아~

매트 밑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꽃잎을 종이로 만들어 볼까~?”

친구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봄 꽃을 시들지 않게 두고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물을 많이 줘요?”, “우유 간식을 주면 안 시들 것 같아요!”, “쓱쓱 자라라고 용돈을 줄까요?”

하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이 상상한 방법 이외에 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영덩이로 눌러요!”, “손으로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로 두드려요!” 하며

압화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하고 싶다고 했던 망치와 나무 블록으로

두드려보고, 잡지 사이에 끼우기 방법과 신문에 놓고 매트 밑에 까는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압화된 꽃잎을 전시하고 싶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꽃잎을 압화하고 나니 친구들은 “종이 같아요!”, “엄청 부들부들해요!”, “날씬해요!” 라며 관찰하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엉덩이로 눌러주고, 잡지에 끼워 준 꽃잎으로 어떤 놀이를 할지 생각을 나누니 친구들은 쌓기 영역 블록을 전시하는 것처럼 압화한 꽃으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점토를 이용해 전시할 수 있는 ‘압화 지점토 오브제’를 만들고, 수채화 물감으로 꾸며 꽃과 함께 한 우리들의 추억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였답니다.

진달래가 종이같아!
찢어질 것 같네~!



민들레 꽃잎은!
압화했더니 흙씨가 되어!



압화한 잎에서 소리가 나!!



말대로 누르니까
동그란 모양이
생기네~!



압화로 얼굴을
만들어 볼까~?



꽃잎이 떨어져서
꽃잎을 그려줬어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만나니까 주황색이 됐다!



물을 많이 묻히니까
예쁜 색깔이 나오네?



매니큐어는 물이랑 똑같이 생겼네?!



빛으로 압화를 톡톡!
눌러잡아야지



빨리 마르게
호호~! 붙어보자!



시계가 한 칸 지나니까
다 말랐어!! 신기하다.



자꾸 손톱에 묻네?
조심히 발라야지



나는 파란색 꽃이야!
제비꽃 같다!

왜 내 손이 더
예뻐보이지?



내 손톱에 꽃잎이 엄청 많아!
내 손이 봄이 되었네



“압화를 손톱에 넣어볼까?”

압화를 이용한 연상 그림을 그려보고, 지점토 오브제를 만들어 압화를 이용한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우리 압화를 손톱에 담아볼까~?” 하며 놀이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네에~?! 우리 손톱은 작는데 어떻게 꽃을 넣어요...!!!”, “꽃을 잘라서 넣을까?” 하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매니큐어를 발라본 경험을 회상하며 아주 작은 모양의 압화를 이용해 자신의 손과 친구들의 손에 발라 보며 우리 작은 손안에 봄을 담으며 놀이하였습니다.



우리 가는 파티 이름은?
뽕송뽕송한 민들레!



시원하고 맛있는!
민들레 차를 소개할래요



꽃으로 하는 매니큐어
놀이하러 오라고 할래!



모두 볼 수 있게
현관문에 붙이자!

“뽕송 뽕송 민들레 가든파티를 준비해요!”

그동안 우리가 민들레와 친하게 내며 즐겁게 놀이했던 것들을 형님들, 동생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놀이하기 위해 튼튼 유치원 마당에서 ‘가든 파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든 파티에서 어떤 놀이를 소개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정해보고, 가든 파티 초대를 위한 소개 포스터와 간판, 민들레 차와 압화 매니큐어 놀이 소개판을 만들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이 물감 물에 적고 있어!



난 뽕뽕뽕
민들레 잎이 좋아!



민들레는
병아리를
담았으니까
노! 란 색!



우리 간판
보고 형님들이
오겠지?





▲ “압화 매니큐어 놀이”



▼ “우리들만의 가든파티”



▲ “시원하고 따뜻한 민들레 차 카페”



▲ “마음 2반 친구들의 가든 파티 체험”



“민들레” 주계 놀이를 마무리 하며...

4월에 접어들면서 봄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민들레를 만나 함께 놀이해 보며 봄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길가에 흔히 피어나고 있던 민들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이야기와 특징을 담고 있는지 관심 있게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 있게 표현하며 놀이를 만들어 냈던 4월 한 달 간의 시간이 우리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 “난 안 친했던 민들레랑 친해지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바라봐 준 멋진 어린이야!” 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며 놀이에 대한 적극성과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